

특별기획

익산 장마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익산시는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의 하절기 재난상황으로부터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설현장과 주요시설물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오는 22일까지 실시한다.

올여름은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다소 많은 강우와 함께 돌발성 호우가 예상됨에 따라 익산시 건설교통국 전체부서가 일시에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건설교통국은 ktx 서부역사 진입로와 중앙차하차도 공사현장을 비롯한 5,000㎡이상의 대형 건축현장, 하천제방,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전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침수예상지역 가로등 분전함 및 교통통신기기 점검을 함께 한다.

현장별로 수방자재와 복구 장비 확인과 시면 등 취약부 점검, 공사장 내 자재와 토사에 의한 호우 시 유수흐름 재해방지에 중점을 둔다.

시는 점검 후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장은 특별 관리해 태풍 및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예방·복구대책을 수립하고, 재난재해 방지와 상황발생시 신속한 복구체계를 구축해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익산=장양원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 물해설가 초청강의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지사장 김진호)는 지난 16일 익산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공사 물해설가인 강원지역본부 박종민 차장을 초청하여 민경강, 미륵, 저수지 등의 역사와 물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해 90분 동안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강의를 실시했다.

이날 강의로 학생들은 물에 대한 소중함과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고 수질보호에 대해 생각해 보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부모님들 대부분이 농업 종사자인 학생들에게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고 이에 대해 공사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김진호 지사장은 "이번 네고강 물해설가 강의를 계기로 아이들이 물에 대한 소중함과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업무용 컴퓨터 보유 불법 개인정보지도점검

군산시가 업무용 컴퓨터에 보유하고 있는 불법 개인정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업무상 수집한 시민의 개인정보를 컴퓨터에 저장하여 사용할 경우 암호화 처리 등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과 업무처리기간이 경과해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는 삭제 조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시는 2014년 11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됨에 따라 직원들이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즉시 삭제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정보통신담당관 10명을 점검반으로 구성하고 오는 24일까지 지도점검에 나선다.

점검반은 2인 1조로 전체 관공소 읍면동을 직접 방문해 직원들의 컴퓨터 운영상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여 개선방법을 지도하고 개인정보가 발견될 경우 암호화 방법, 운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즉시 삭제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생활수칙이 담긴 홍보 전단지 등을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해 시민들 스스로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생활 수칙을 실천하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군산=문정근기자



최근 군산시 조촌·경장동 일대를 돌아보니 이면도로 곳곳에 수북하게 쌓여 있는 쓰레기를 쉽게 찾아볼 있으며, 인적이 드문 일부 사유지의 경우 쓰레기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많은 쓰레기더미가 쌓여 있다.

조촌·경장동 쓰레기 불법투기 '몸살'

군산시 19개소 총 5톤 분량 수거...군부대 봉사단 동원 환경정비 실시

동군산 개발의 중심인 조촌·경장동 지역에서 쓰레기 불법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군산시 조촌동사무소에는 곳곳에 버려진 무단투기쓰레기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와 도시미관저해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조촌동은 지난달 불법투기 쓰레기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 상습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 19개소에 총 5톤 분량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지난 8일에는 30여명의 군부대 봉사단을 동원해 관내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불법투기된 쓰레기 내용을 조사해 투기지를 찾아내고 통장들을 감시원으로 지정하면서까지 무단투기자 적발에 나서고 있다.

또 해당지역에 무단투기 방지시설물을 설치해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양심 주민들은 감시가 허술한 심야·새벽시간 등을 이용해 쓰레기를 버리고 도주하는 일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

실제 조촌·경장동 일대를 돌아보니 이면도로 곳곳에 수북하게 쌓여 있는 쓰레기를 쉽게 찾아볼 있으며, 인적이 드문 일부 사유지의 경우 쓰레기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많은 쓰레기더미가 쌓여 있다.

특히, 사유지에 버려진 쓰레기는 군산시 입장에서 골칫거리로 작용하고 있다.

사유지에 쌓인 쓰레기를 해당 관청에서 치울 경우 자칫 사유재산을 침범했다거나 중요한 물건을 분실했다 등의 역지성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있어 이렇지도 저렇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산=문정근기자

옛 군산 시청부지 활용방안 전문기관 용역 실시

빠르면 이달말 완료계획...근대문화 관광거점 역할 방안 마련

군산시 중앙로에 자리한 옛 군산 시청 부지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기관 용역이 실시돼 귀추가 주목된다. 군산시는 지난해 9월 67억여 원에 옛 시청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설문조사를 거쳐 '녹지·문화공간 조성'이라는 방향을 설정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옛 시청부지 활용방안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일각에서는 활용용도를 놓고 여러 의견이 대두되면서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근대문화 탐방객들의 발길이 이성당을 비롯한 옛 시청부지 일대에

모여들고 있으나 원도심의 중앙에 자리한 옛 시청건물 및 부지가 장기간 방치되면서 도시 미관까지 크게 저하시키는 등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 건물이 사실상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옛 시청부지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시행하기로 하고, 지난달 초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는 옛 시청부지를 인근 근산초 이전에 대비해 연계 활용하는 방안, 관광객들을 유인해 주변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점 활용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근산 원도심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는 것과 달리 이들의 재방문 비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옛 군산시청 부지가 소비주체인 젊은 층의 재방문을 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번 용역결과는 빠르면 이달말 나올 계획으로 옛 시청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 윤곽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옛 시청부지가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요소자인 만큼 근대문화 관광의 거점 역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근기자

익산시 청소년어울림마당 '삼삼한 농구대회' 개최

익산시가 지원하는 익산시청소년어울림마당 두 번째 행사인 '삼삼한 농구대회(3on3)'가 지난 18일 오전 중앙체육공원 농구장에서 청소년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익산시 중·고등학교 학생 100여명이 20개 농구팀을 구성하여 서로의 농구실력을 겨루고 승부를 펼쳤다.

농구경기 뿐 아니라 다양한 체류 부스를 마련해 일반 청소년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선보였다.

또한 이날 청소년수련관의 퓨어 등 3개의 청소년동아리가 참여하여 멋진 축하공연을 펼쳐 대회의 분위기를 띄웠다.

김용신 복지청소년과장은 "이번 행사가 청소년들의 교류와 유대감을 형성시키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보급을



지난 18일 오전 중앙체육공원 농구장에서 익산시 중·고등학교 학생 100여명이 20개 농구팀을 구성하여 서로의 농구실력을 겨루고 승부를 펼쳤다.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 형성과 여가생활에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보건소, 의료소외계층 아동 대상 '키 쑥쑥 몸 튼튼' 프로그램 6주 운영

혈압, 혈당 측정 등 사전검사·매회 2시간 운동 실시 예정

군산시보건소(소장 정형태)는 전북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과 함께 의료소외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키 쑥쑥 몸 튼튼' 프로그램을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6주간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프로그램은 최근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자녀에 대한 식생활습관 관심이 줄어들어 아동 비만이 날로 증가 추세에 있어 마련됐다.

보건소는 지역아동센터 및 드림스타트에서 추천받은 아동 20명을 대상으로 혈압, 혈당, BMI 측정 등 사전검사를 실시한 후 매회 2시간씩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종료 후 비만과 관련

된 질환이 의심되는 아동은 의료기관(전북대학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어린이병원)과 연계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게 된다.

정형태 보건소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어린이 비만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해 개인별 운동처방을 통해 아동에게 신체활동의 중요성과 운동의 동기부여를 제공함으로써 비만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시 보건소는 방학 중 어린이 및 청소년 신체활동 강화를 위한 비만교실을 운영해 대사증후군 예방 및 성장발육에 기여하고, 학생들의 올바른 생활습관을 인식시키는 교육을 통해 건강 생활습관을 실천하도록 할 예정이다.

/군산=문정근기자

군산해경, 무허가 어획물 운반선 압송조사 강화

해경이 불법 어획물운반선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군산해경비안전서(서장 장인식)는 무허가·제한조건을 위반한 어획물 운반선에 대해 압송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제재 강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어획물 운반선은 다른 중국어선에 연료와 식량을 공급하고, 어선이 조업한 어획물을 수거해 자국으로 수송하는 보급·수송 역할을 하는 어선이다. 중국어선이 선적함을 출항해 한 달 이상 조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어획물 운반선의 역할 때문이다.

우리 EEZ 해역에서 조업이 허가된 중국어선이라 하더라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이 정해져 있지만, 이 운반선을 이용해 제한량을 초과한 남획이 계속

되고 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실제 지난달 14일 어청도 남서쪽 120km 해상에서 72톤급 중국 대련선적 어획물 운반선이 다른 중국어선으로부터 낚여받은 어획물 44톤을 조업 일지 기재 없이 중국으로 운반하려다 군산해경에 단속됐다.

군산해경은 어획물 운반선의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현장조사 없이 군산항으로 압송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며, 어획물 압수 및 조사가 끝난 뒤에도 중국 측에 직접 인계해 조업정지나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3년간 단속된 중국어선은 모두 936척으로 이중 어획물운반선은 41척 전체의 4%에 해당된다.

/군산=문정근기자

이마트군산점 '지구사랑·환경사랑 그림대회' 개최

이마트 군산점(점장 고대원)은 지난 18일 군산금강랜드에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지구사랑·환경사랑 그림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이마트 희망나눔프로젝트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군산지역아동센터 아동 5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서 이마트는 그림그리기 수상자 9명에게 상품을 지원하고 모든 참가아동에게 화구세트와 종이를 제

공했다. 이 밖에도 풍선 날리기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를 통해 아이들이 가족들과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지난 2011년부터 '희망나눔 프로젝트'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고대원 이마트 군산점장은 "앞으로도 지역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 사회공헌활동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근기자

익산시 일반음식점 영업자 대상 위생교육 실시

익산시는 6월 16일과 17일 양일간 승리에슬회관에서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1,20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라북도지회 익산시지부가 주관하는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일반음식점의 식품안전성 확보와 위생관리 능력을 키우고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친절하고 안전한 상차림으로 좋은 인상을 남길 것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익산시지부는 외부 강사를 초청해 음식문화개선 사업 안내를 비롯해 식중독예방, 친절서비스, 남은음식 재사용하지 않기 등의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시는 일반음식점 관계자에 '나트륨저감' '덜 달게 먹기' 홍보물을 배포하고, 외국산, 노약자, 장애인에 위한 일반음식점 인식제이블 문화 조성 과 '위생업소 영업자 익산 주수 갖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영업자 위생교육을 통해 식품안전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키워 익산에서 식품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